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새로운 길을 나서는 2020 / 11월 3주차

■ 영상택배 시즌2 - 아홉 번째 이야기 "왕기석 명창 - 사철가"

국악한마당 | 왕기석 - 사철가 | KBS전주

사철가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올해로 국악 인생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대의 소리꾼 왕기석 명창이 들려주는 사철가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문을 열 때부터 이사로 함께 해주고 계신 왕기석 명창이 전하는 사철가와 함께 가는 가을을 배웅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마중하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장근범 개인전
이런 가족 같은 가족

2020. 10. 14. 수 - 11. 21. 토

여는시간 10:30~18:00 일. 월. 화 휴관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6-17(자동차길 16-5) 전화 063. 905. 2366

초기 홍보자료와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우리 연구원 장근범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서학동 사진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189-20)**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작업은 가족의 개별적 구성원을 통해 사회적 활동과 가치를 이미지로 재현하고픈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21일 전에 전주에 오시면 서학동 사진관을 들리셔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을 만나보시는 시간 권해드립니다. 매주 일,월,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전시회 관련 문의전화 / 063-905-2366**

■ 역사 속의 오늘

백담사로 스며든 사람(1988.11.23)

백담사의 기원은 신라 진덕여왕 원년(647)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아미타삼존불을 조성 봉안하고 창건한 한계사이다. 그 뒤 이 절집은 1752년(영조 51)까지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취사로 불리다가 1783년에 백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설에 따르면 백담사라는 이름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못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7차에 걸친 실화(失火)가 있었으니 유독 이 절집은 화마와 가까웠던 셈이다. 화재가 날 때마다 터전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백담사라는 이름엔 거듭되는 화재를 피해보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 분명하다.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1879~1944)이 수도하면서 <조선불교유신론>을 쓰고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한 곳이다. 백담사 극락보전 앞 화엄실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12대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 라는 현판이 붙어있었다.

대한민국 12대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양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아직도 “각하”라 부르고 있고 그를 심판하자 이야기하는 이들은 여전히 “살인마”라 부른다. 그는 초헌법적인 18년 독재 중, 심복의 총탄에 죽은 정권을 12·12쿠데타로 이어받았다. 광주학살을 저지른 후 1980년 9월 1일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헌법을 개정하여 1981년 3월 3일 대한민국 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중 “일해재단(세종연구소로 개칭)”을 설립, 600여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금(?)하였다. 퇴임 후 광주학살과 각종 비리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러분의 마음을 후련하게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모처럼 시작된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어떤 단죄도 달게 받아야 할 처지임을 깊이 깨우치면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국민 여러분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조국을 떠나는 것이 아닌 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이라도 가겠다.” 는 말을 남긴후 법적인 처벌을 피해 백담사로 스며들었다.

당시 정치권은 그의 백담사 칩거에 “사회안정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 는 입장을 보이며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1988년까지만 해도 통행이 불편했던 백담사의 가는 길은 그가 머물 때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포장되었고 개울을 가로 지르는 다리도 놓아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백담사에 들어가 “우리 집안에 제사 지낼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갇혀 버렸다.” 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는데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솔하게 죽고 감옥에 간 이에 대한 단 한 번의 사죄도 없이 1990년 12월 30일 백담사에서 나왔다.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시민들에 의해 1996년 1월 법정에 세워져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5공 정권의 정통성” 을 주장하는 단식투정(!)으로 저항했다.

그는 1997년 12월 22일 사면으로 풀려난 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누리고 있다. “29만 원 밖에 없다” 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화수분이면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후 권력에서 밀려난 독재자 내외가 2년 동안 절치부심한 화엄실은 만해가 ‘님의 침묵’을 탈고한 곳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뜻밖의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다. 만해 한용운이 떠난 자리에 일해(日海)가 들어 백담사의 중흥을 이끌었다. 다만 백담사의 중흥이었을 뿐이었다.

그의 죄과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 역사는 여전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용서하지 않느냐” 고 나무라고 있으며 그는 사죄는커녕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욕보이고 있다.

1988년 11월 23일 “아직도 대통령 각하이자 여전히 사죄하지 않은 학살자” 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와 내설악 백담사로 스며들었고 그곳에 나붙었던 안내 푼말을 제거하는데 30년이 소요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첫 번째 이야기 “역사와 신화의 고장 김해”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국사 시간에 불교의 북방전래설을 배웠다. 고구려는 서기 372년(소수림왕2), 백제는 384년(침류왕1)에 불교를 공인했다고 한다. 신라는 이보다 훨씬 늦은 527년(법흥왕14)에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고구려의 묵호자墨胡子가 경상북도 선산 일대에서 포교 활동을 한 시기도 눌지왕訥祗王때라고 배웠는데, 눌지왕은 417년에서 458년까지 재위했다. 모두가『삼국사기』를 논리적인 근거로 삼은 사실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불교 북방전래설에 반하여 남방전래설을 제기하는 공간이 이 땅에 따로 존재한다. 그곳은 바로 경상남도 김해다. 김해는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중심지이자 불교가 서기 48년에 인도에서 직접 전래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역사와 신화의 고장이다. 금관가야는 가락국駕洛國으로도 일컬어진다.

오늘날 김해는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행으로 도시 중심부에는 아파트 군락이, 외곽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난립하였다. 통상 역사와 신화의 도시가 지니기 마련인 신비롭고도 고색창연한 모습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그렇지만 역사와 전통의 맥이란 덧없이 쉬 사라지지 않는다.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 있기 마련이다. 김해에 남은 역사의 자취는 '수로왕릉首露王陵'과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이 가장 대표적이다. 가야의 유물들은 김해박물관에 고스란히 보관 중이다.

김해의 신화는 수로왕릉에서 출발한다.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제기하는 수로왕비릉을 비롯해 '구지봉'과 수많은 절이나 암자들이 신화 속에 전해 온다.

김해는 작은 도시지만 실로 하루 만에 다 소화하기 어려운 답사지다. 이삼 일을 구경한다면 손 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김해의 답사는 언제나 긴 여운을 남긴다. 한두 번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으리 만큼 구경거리가 많다. 한마디로 가락국의 역사와 신화의 자취가 2천 년을 훌쩍 건너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는 것이다.

김해 답사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건너야 할 외줄타기다.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꼭 중심을 잃고 마는 흥미로운 곳이다. 역사의 경직성이나 단호함보다 신화와 전설이 주는 넉넉함과 신비감 쪽으로 절로 몸이 기울곤 한다.

나 또한 답사의 중간중간에 몇 번이나 몸을 바로 세운다고 세우지만, 어느 틈엔가 저절로 신화 쪽으로 몸이 기울곤 한다. 그 기울기는 다시금 김해를 찾고 싶은 마음을 부른다. 신화 혹은 설화가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성씨이니,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화두다.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신라의 경우에도 성과 관련한 수많은 토우土偶들이 출토되었다. 심지어는 그릇에다가 남녀가 결합하는 모습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분명 제기祭器로 사용되었을 동그렇게 생긴 술동이 상단에는 교합 직전의 두 남녀가 올라탔다.

뒤쪽을 차지한 남자의 경우에 목과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우뚝 선 그것에서는 한껏 부푼 흥분과 기대가 미루어진다. 여인의 행복에 겨운 미소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뒤로 빼낸 튼실한 엉덩이에서는 그네들의 다산多産에 대한 염원이 쉽사리 읽혀진다. 고대인들의 질박하면서도 건강한 성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유물이다. 역사와 신화가 만나는 정점에 버티고 선 김수로왕에 관한 설화 한 편 역시 지극히 원초적이다. 성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남자의 생식기를 테마로 삼았다. 그것도 아주 큰 생식기다.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그것은 크기가 매우 장대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가락국의 백성들이 낙동강을 왕래하는 데 불편해하는 모습을 본 수로왕은 자신의 그것을 강 언덕에 걸쳐 놓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수로왕의 그것인 줄 모르고 다리로서 여겨 강을 건너곤 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고 건너다가 다리 한가운데에서 쉬었다. 그는 곰방대를 꺼내 담배 한 대를 피운 후 무심코 다리 바닥에 탁탁 털었다. 순간 왕은 뜨거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으나 그냥 꼭 참았다. 이 일로 인해 수로왕의 그것에는 검은 점이 생겼는데, 지금도 수로왕의 후예인 김해 김씨 남자들의 남근男根에는 반드시 검은 점이 있다고 한다.



항아리 위에 자리 잡은 신라의 토우 | 튼실한 엉덩이를 뒤로 빼낸 여인의 천연덕스러운 웃음에서 다산에 대한 고대인들의 염원이 뚜렷하게 읽혀진다.

담배가 있었을 리 만무한 시절의 이야기니 후대의 개입과 변모라고 짐작된다.『삼국유사』에는 신라 지철로왕智哲老王的 그것이 매우 커서 배필을 찾기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의 상식으로 미룬다면 왕의 그것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지철로왕은 지증왕智證王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지금도 경주시의 건천 땅에 존재하는 여근곡女根谷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실제로 김해에 남은 가락국의 유적 주변에는 남근석이 흔하다.

더욱이 고대국가는 전투력과 생산력의 고양을 위해 남근을 숭배하지 않았던가. 이 과정에서 지철로왕과 수로왕의 남근에 관련한 설화가 배태되었으리라.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남근과 여근숭배사상은 이렇게 고대국가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져 우리나라 곳곳에 남근석과 여근석을 남겼다.

가락국 역시 자생적인 남근숭배사상이 팽배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다시 힌두교에서 '링감[남근]'과 '요니[여근]'를 숭배하는 사조가 흘러들어 와 남근숭배사상은 더욱 증폭되었으리라.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진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두 번째 이야기 "김수로왕과 수릉"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 오겠습니다.